

## ■ 쿠바혁명의 짧은 연대기

박 구 병

### 쿠바혁명 50주년 기념식

2009년 1월 1일 쿠바혁명 50주년 기념식이 조촐하게 거행되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기념식은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1월 풀헨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를 축출한 뒤 새로운 혁명 정부의 개막을 알린 아바나의 산티아고(Santiago de Cuba) 광장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카리스마 넘치는 장광설의 달인 피델 카스트로는 지난 2006년 7월 이후 건강 악화로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여전히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자 2008년 2월 그 뒤를 이어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취임한 라울 카스트로가 혁명 투쟁의 지속을 다짐했다.



2009년 1월 8일 산티아고에서 혁명50주년 기념사를 하는 라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는 “오늘날, 혁명의 기운은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혁명의 주요 원칙은 한 점이라도 결코 약화되지 않았고,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삶은 끝없는 전투란 점을 잊고서 일부 지치고 심지어 그 역사를

배신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광장의 군중은 “피델 만세! 혁명 만세!”를 외쳤지만 광장 밖의 기념행사는 곤경에 처한 국내의 경제 상황 탓에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며 과연 혁명이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물음이 제기되기도 했다.

### 몬카다 병영 습격: 되살아난 마르티의 투쟁

몇 시간 후면 그대들은 승리를 거두거나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7월 26일] 운동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긴다면 마르티의 희망은 좀 더 일찍 이루어질 것이다. 100주년을 맞아 1868년과 1895년에 독립 운동을 도모한 이들처럼 여기 오리엔테에서 처음으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부르짖기로 하자.

—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기 몇 시간 전에 카스트로가 남긴 연설 중에서

쿠바혁명의 연대기는 흔히 1953년 7월 26일 쿠바 동남부 산티아고에 있는 몬카다 병영의 습격 사건과 더불어 시작된다. 당시 쿠바의 최고 권력자 풀헨시오 바티스타는 1933년 9월 ‘하사관들의 반란’ 이후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터였다. 이미 1940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44년까지 재임한 바티스타는 1952년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해 패배할 확률이 커지자 1952년 3월 10일 두 번째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다시 정권을 장악한 그는 곧이어 의회를 해산시키고 사실상 1940년 헌법을 폐기시

켰다. 몬카다 병영 습격의 주역은 나중에 혁명의 ‘최고 지도자’로 떠오른 피델 카스트로였다. 아바나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피델 카스트로는 오르토독소스(Ortodoxos)라고 하는 쿠바 인민당 후보로 1952년 의회 선거에 나섰지만 바티스타의 군사쿠데타 탓에 선거가 무산되자 1940년 헌법의 복원과 자유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제도권 정치인들과 결별하고 무장투쟁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카스트로를 비롯해 청년 165명으로 구성된 ‘7월 26일 운동’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몬카다 병영과 방송을 장악한 뒤 전국적인 봉기의 도화선을 만들고자 했으나 비밀 엄수의 원칙에 따라 점조직 중심으로 추진된 습격 작전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피델 카스트로는 병영 습격 혐의로 체포된 뒤 1953년 9월 10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산티아고데쿠바 법정에 기소되었다. 같은 해 10월 16일 작은 병실에 임시로 마련된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26년을 구형받은 카스트로는 그야말로 전설이 된 비공개 최후 진술을 통해 바티스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대조적으로 ‘7월 26일 운동’의 저항은 철저하게 합헌적인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티스타 정부를 고발하고 몬카다 병영 습격을 쿠바 독립의 영웅 호세 마르티(José Martí, 1853~1895)의 전통 속에 자리매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했다. “쿠바의 문제는 쿠바를 독립시킨 선조들이 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해 기울였을 때와 똑같은 힘과 의지와 애국심을 쏟을 때에만 해결될 것”이며 “나는 오늘날 모든 법정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려고 한다. (중략) 온갖 협박과 비열한 광기 탓에 위축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감옥이 흑독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동료 70명을 살육한 야비한 독재자의 광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감옥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

라,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역사는 내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La historia me absolverá).”

호르헤 이바라(Jorge Ibarra)와 라몬 데 아르마스(Ramón de Armas) 같은 쿠바의 역사가들은 ‘백 년 동안의 투쟁’이라는 명제를 통해 ‘7월 26일 운동’ 세력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바티스타 독재에 항거한 투쟁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1850년대 나르시소 로페스(Narciso López, 1797~1851)의 쿠바 해안 상륙 작전, 1868년(‘야라의 함성’)과 1895년(‘바이레의 함성’)의 항쟁(1868-1898년의 ‘쿠바 해방 전쟁’), 1930년대의 저항을 면면히 계승하는 역사적 혁명이었고 특히 1953년 몬카다 병영 습격은 호세 마르티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항거였다.

카스트로는 15년 형을 선고받고 ‘이슬라 데 피노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55년 5월 여론을 의식한 바티스타의 사면령에 따라 석방된 뒤 곧 멕시코로 망명했다. 망명지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혁명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Ernesto ‘Che’ Guevara)를 만나 쿠바 해방에 매진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카스트로가 이끈 공격대원 82명은 1956년 11월 24일 그란마(Granma, ‘할머니’를 뜻



위 사진은 하늘에서 본 1944년 몬카다 병영의 모습. 가운데 사진은 체포된 ‘7월 26일 운동’ 조직원들. 아래는 조사를 받고 있는 젊은 모습의 피델 카스트로



1957년 2월 피델 카스트로와 인터뷰하는 허버트 매튜스 기자

하는 ‘그란마’는 혁명의 모태이자 쿠바 사회주의의 초상(肖像)이 되었다. ‘그란마’는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 기관지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작은 요트를 타고 해방의 거보를 내디뎠으나 혁명 세력의 쿠바 침투 작전은 크게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은 어렵사리 동부 시에라 마에스트라의 산악 지대에 거점을 확보한 뒤 게릴라 활동을 통해 정부군에 맞섰다. 카스트로는 자신을 바티스타의 대안으로 내세우기 위해 군사 투쟁과 정치 투쟁을 연계시키면서 1957년 2월 중순 《뉴욕타임스》 기자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한 바 있는 허버트 매튜스(Herbert Matthews)와 대담을 가졌다. 게릴라 대원의 수효를 과대평가한 매튜스는 카스트로를 “애국심을 지닌 혁명가이자 사회민주주의자”로 묘사했고, 이를 계기로 혁명 세력은 국제적인 이목을 끌게 되었다. 체 게바라는 카밀로 시엔푸에고스(Camilo Cienfuegos), 라울 카스트로(훗날 오랫동안 국방장관을 역임했다)와 함께 산악 전투에서 탁월한 전과를 올리는 동시에 농민층을 규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1958년 중반 즈음 무장 병력은 300명에 불과했으나 연말에 이르러선 3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 가운데 200명 정도는 미국인을 비롯한 외지인이었다. 청년 게릴라 전사<sup>1)</sup>들은

1) 1958년 당시 카스트로 형제와 체 게바라를 비롯한 쿠바 게릴라 지도자 일곱 명의 평균 연령은 28살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특히 게바라가 최후를 맞게 되는 1967년 볼리비아의 경우는 34살)과 견주어도 특기할 만하다. Timothy P. Wickham-Crowley, *Guerrillas and Revolution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Study of Insurgents and Regimes Since 195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20.

1958년 12월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1959년 1월 1일 주력 부대가 아바나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 혁명의 길

우리는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그 길은 험난하고 길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번에 혁명은 실패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 1959년 1월 1일, 피델 카스트로

1959년 1월 바티스타의 독재 정권을 축출할 때 혁명 세력은 ‘사회주의 혁명’을 표방하지 않았다. 대신 반제국주의적 민족주권의 회복,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투쟁의 지향은 카스트로가 한때 몸담은 ‘오르토독소스’의 이념적 성향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1895년 ‘제2차 독립전쟁’ 도중 사망한 호세 마르티의 투쟁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마르티는 1891년 「우리 아메리카」를 통해 유럽의 영향에 묶인 아메리카의 형편과 식민주의적 역사 해석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자기정체성을 모색한 바 있다. 카스트로는 앞서 언급한 최후 진술에서 형법 관련 서적이나 ‘쿠바 인의 스승’인 마르티의 저서를 차입하는 것조차 금지한 정부 당국을 비판하면서 마르티를 ‘7월 26일 운동’의 정신적인 아버지로 추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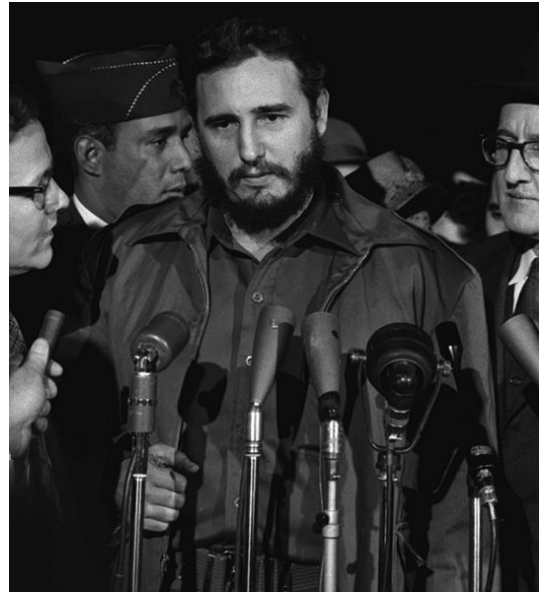
1956년 11월 쿠바 침투 작전을 앞두고 멕시코에서 정리된 ‘7월 26일 운동’의 강령에 따르면, 혁명 세력은 정치적 주권과 자유,

경제적 독립, 그리고 문화적 특성의 통일과 조화를 추구했다. ‘7월 26일 운동’ 세력에게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링컨의 공식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하나가 아닌 복수(複數)의 권력, 달리 말해 입법·행정·사법부의 상호균형에 입각한 공화국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 민중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적어도 그들이 수정을 원할 때까지 1940년 헌법을 국가 최고의 법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뜻하는 바는 한마디로 독립적 지위를 지니는 쿠바의 재탄생이었다. 1902년 명목상으론 독립을 이뤘지만 1950년대 중엽에도 여전히 토지, 광물자원, 공공서비스, 신용기관, 교통수단과 같이 중추적인 경제적 기반은 대부분 외부 세력에게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란 종속적 상황의 개선과 쿠바인들의 이익 증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의란 인간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가 충족되고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했다. ‘7월 26일 운동’은 이른바 ‘자유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불가피하게 타인에 대한 착취를 동반하며 소수에게 부의 축적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쿠바를 단작경제(monoculture), 독점적 특권, 대토지소유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경제 계획 체제를 모색했다.

1959년 1월에 몇 주 동안 온건한 연설을 통해 ‘휴머니즘적 혁명’을 주창한 카스트로는 곧이어 임금 인상, 임대료 인하, 국유화, 농업개혁을 통해 바티스타 체제와 결별하게 되었다. 처음 6개월 동안 혁명 정부는 ‘반혁명분자’(주로 돈에 매수된 부패 관리) 550명을 숙청하고 토지개혁(소작농에게 토지 소유권 양도, 토지 소유 상한의 법제화와 초과분의 몰수, 대단위 조림지 조성, 대가족 가정에게 우선적인 토지 분배, 협동조합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장비·숙소의 제공, 교육 혜택)을 시행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혁명 정부는 1898년 이래 밀착관계에 있던 미국<sup>2)</sup>에 대해 뚜렷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진 않았다. 예컨대 카스트로는 1959년 4월에 미국을 방문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리처드 닉슨 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갖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쿠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절반과 제당공장의 75%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쿠바의 혁명 세력이 표방한 주권 회복은 불가피하게 미국인들의 기득권과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1959년 3월 미국계 전화회사의 국유화, 6월 농업개혁법의 통과, 1960년 엽권련(cigar)과 제당회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여 기자들 앞에 선 피델 카스트로.

2)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 뒤 ‘스페인의 마지막 식민지’였던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미국은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쿠바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관타나모(Guantánamo) 만에 해군 기지를 설치했으며, 플랫 수정안(Platt Amendment)을 통해 언제든지 쿠바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원래 미국 육군 장관 루트(Elihu Root)가 발의한 ‘육군 예산지출법’의 부속조항을 코네티컷 주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플랫(Orville H. Platt, 1827~1905)이 연방 상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흔히 플랫 수정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쿠바 인들이 주권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해라고 여겼지만 이 수정안은 1902년 쿠바 헌법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미국은 이 수정안이 1934년 폐기될 때까지 이에 근거해 우호적인 정부를 유지하거나 미국인 투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군대를 파견했다. 특히 3조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쿠바의 독립을 보존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정부를 유지하고자 (중략) 미국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했다. 플랫 수정안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선린정책’을 계기로 관타나모 기지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제외하곤 1934년에 폐기되었다. 관타나모 만에 대한 미국의 장기 임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의 국유화에 이어 1961년 초 쿠바에 소련식 중앙계획기구 (JUCEPLAN: Junta Central de Planificación)가 설치되자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양국 관계 재조정 의 계기로 여겨졌던 1959년 혁명이 점차 전면적 단절의 전기(轉機)로 변모한 것은 1960~1962년 냉전 대립의 고조와 관련이 깊다. 미국 정부는 1960년 10월 통상 금지령과 1961년 1월 단교 선언에 이어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sup>3)</sup> 통해 쿠바 문제에 개입하려고 했다. 1962년 2월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회의에서는 미주기구 차원의 대 쿠바 통상금지령이 쿠바만 홀로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국가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미주기구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산권과의 제휴가 아메리카의 단합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쿠바의 회원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쿠바의 고립을



쿠바 《혁명》지 호외. “전쟁이 임박했다”는 헤드라인에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알 수 있다.

3) 1948년 3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창설된 미주기구의 초석을 놓은 것은 1947년의 히우 협약이었다. 당시 미국의 주도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 모인 아메리카 대륙의 21개 국가들은 상호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어떤 아메리카 국가가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위협당한 것으로 간주해 집단적인 반격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면서 냉전 시대 아메리카의 공동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재촉했다. 뒤이어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대다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쿠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1960년 8월 마피아 조직을 통해 카스트로의 독살을 꾀한 것을 비롯해 수 십 차례 암살을 시도했다.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묵인한 가운데 1961년 4월 중순 중앙정보국의 주도로 이뤄진 반(反)카스트로 세력의 ‘코치노스 만’<sup>4)</sup> 침공이 큰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쿠바는 체제의 존립을 위해 소련의 후원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1962년 10월에는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뻔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쿠바를 볼모로 미국과 소련이 벌인 힘겨루기로서 끝내 미국은 쿠바 개입을 중단하고 터키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하며 소련은 쿠바에 설치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시킨다는 조건으로 존 F. 케네디와 니키타 흐루쇼프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두 강대국이 주도하는 냉전 대립 속에서 쿠바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미사일 위기 뒤에도 미국의 적대감이 쿠바의 혁명 정부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는 한편, 적대 세력의 상존과 냉전 대립의 고착은 역설적이게도 혁명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과장된 침공의 위협과 카스트로에 대한 수차례의 암살 기도는 부정적 통합의 기회로 활용되었다.

4) 이를 흔히 ‘피그스 만’(Bay of Pigs)이라고 옮기는 것은 잘못이다. 쿠바의 서남부에 위치한 이 지역을 스페인어로는 ‘Bahía de cochinos’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코치노’(cochino)는 돼지라기보다는 ‘쥐치 무리’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지명은 ‘피그스 만’이 아니라 ‘코치노스 만’(굳이 번역하면 ‘쥐치 무리 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참고로 쿠바에서는 ‘히론 전투’라고 부른다.

## 권력의 집중과 혁명의 급진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언제나 쿠바 혁명가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행동할 것이네. 내 아이들과 아내에게 어떤 물질적 기반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나는 슬프지 않네. 그들이 생활하고 교육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세.

—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며 체 게바라가 피델 카스트로에게 남긴 편지 중에서

국가안보와 애국심의 강화, 그리고 우호적인 세력과의 국제적 연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카스트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기보다는 권력의 집중을 선택했다. 그는 기존의 입법부를 해산시키면서 정치적 다원주의의 틀을 제거하는 대신 혁명 정부가 인정하는 각종 위원회와 연맹을 장악하거나-쿠바노동자연맹(CTC)과 전국소농연합(ANAP)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쿠바여성연맹(FMC)과 같은 새로운 단체의 창설을 지원했다. 또한 1961년부터 문맹퇴치 캠페인과 보건의료 체제의 개편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대중 동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의 쌍두마차로 떠오른 체 게바라는 쿠바혁명의 급진화에 공헌했다. 미국의 단교선언 후 체 게바라는 신설된 산업부 장관으로서 국영 기업들을 관리하고 산업화 4개년 계획을 지휘했다. 이때 제당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정부가 여러 경제 분야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서 중앙계획과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이라는 사회주의적 방식이 점차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탕의 섬’ 쿠바의 농업생산을 다변화하고 경

공업을 육성하려던 체 게바라의 산업화 정책은 미국의 봉쇄 정책과 소련의 미흡한 지원 탓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체 게바라는 1950년대 후반 이래 추진된 소련의 ‘경제 개혁’이 ‘제2의 미국’ 건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회 전체를 위해 공헌하기보다는 물질적 보상과 이윤에 민감하게 된 소련 인들도 ‘양키’와 다를 바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체 게바라에게는 개인의 의식구조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심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일상적 욕망이나 물질 우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느냐가 새로운 인간과 사회 체제를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런 체 게바라의 생각은 쿠바 정부가 추진한 ‘도덕적 장려 운동’(1965)과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 캠페인’(1966)의 밑거름이 되었다. 체 게바라는 1965년 소련의 패권적 태도를 비난하고 모든 공직과 심지어 쿠바 시민권을 반납한 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와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의 혁명 투쟁에 가담했다. 결국 1967년 10월 볼리비아에서 사살된 체 게바라는 게릴라 전사의 신화이자 ‘혁명의 순교자’로서 제3세계 반제국주의 투쟁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항 문화의 표상으로서 전 세계인에게 다양한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어쨌든 쿠바의 혁명 정부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1961~1962년 냉전 대립의 격화 속에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자 사회주의적 방식을 수용한 셈이었다. 미국의 직간접적인 후원을 업은 반(反)카스트로 세력의 쿠바 공세가 임박하자 카스트로는 1961년 4월 16일 쿠바 병사들의 장례식 연설에서 쿠바혁명은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에 의한, 가난한 자를 위한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혁명”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사상을 “마르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통합”으로 규정하고,<sup>5)</sup> 1961년 12월에는 자신을 마르크스·레닌주의자

로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회주의 공동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동계급의 선도성, 과학적 유물론 등을 명시한 1976년 헌법의 제정 때까지 이런 사회주의로의 전환 선언은 실제로 법적인 뒷받침을 확보하진 못했다.

미국이 20세기 내내 라틴아메리카 우익 독재의 지원본부로서 기능했듯이 혁명 이후 쿠바는 반제국주의 혁명의 수출기지가 되었다.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소수의 전위 집단이 혁명적 상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체 게바라의 게릴라 전쟁론과 포코(foco) 전략은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기 힘든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 여러 나라에서 좌파 세력의 분열을 야기한 만큼이나 큰 영감을 선사하기도 했다. 쿠바혁명은 군부 정권의 탄압에 반발한 과테말라의 일부 군 장교들과 저항 세력이 1960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산악지대에 거점을 마련한 뒤 1996년 12월 말까지 길고 긴 내전을 전개하는 데 도화선을 제공했다. 그리고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1961)이나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1979)과 같은 게릴라 조직의 결성에 자양분을 공급했다.

쿠바혁명은 1990년대 초 ‘평화 시의 특별한 시기’를 겪게 될 때까지 한동안 제3세계 전반에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트리컨티넨탈리즘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1966년 1월 쿠바의 아바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 민중의 트리컨티넨탈 연대 회의’는 공식적인 식민통치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는 국제 자본과 서구 열강의 사회경제적·문화적 지배에 대항해 새로운 국제주의적 연대를 수립하고자 했다.

---

5) 니콜라우스 베르츠, 「쿠바혁명(1958~59년)」, 페터 벤데 엮음 (권세훈 옮김), 『혁명의 역사』, 시아출판사, 2004, p. 333

## 이상과 현실, 남은 자와 떠난 자

쿠바의 혁명 후 체제가 지니는 특성은 변혁 과정을 주도할 혁명 정당의 결여와 낮은 수준의 정치적 제도화로 요약될 수 있다. 1965년 쿠바공산당이 새롭게 구성된 뒤 첫 번째 전당대회가 열리기까지 10년이 걸렸고 사회주의 선언 이래 15년이 지난 1976년에야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집권 초기에는 혁명의 환희와 새로운 열망, 그리고 카스트로 개인의 카리스마, 달리 말해 혁명-조국-피델의 역동성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체제의 공고화 단계에서 혁명 운동의 온건파는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 중산층 출신의 급진파가 고위직을 독점한 반면 노동자와 농민들은 대개 부차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편이었다.

이른바 ‘1976년의 전환’을 통해 전국 곳곳에 민중 권력(Poder Popular)의 지부(Poder Local)가 설치되었고 경제 관리와 계획 체제(SDPE: Sistema de Dirección y Planificación de la Economía)의 실행으로 여러 생산 단위에서 관리와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얼마간 보장되었다. 노동조합과 지역공동체에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은 관료제의 폐해를 시정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확고히 다지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1985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자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고 평화공존이라는 새로운 사고를 강조하며 쿠바를 비롯해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자 카스트로는 1986년 ‘오류와 부정적 경향에 대한 수정 캠페인’을 통해 기존 정책의 변화를 모색했다. ‘수정 캠페인’은 농촌경제의 향상과 인센티브제 도입, 투자확대와 더불어 주택, 병원, 탁아시설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쿠바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는 다른 한편에서 체제 이탈자를

양산했다. 1959년부터 몇 년 동안 바티스타 일파나 군 장교 같은 반혁명 세력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중상류층, 전문직업인들이 쿠바를 탈출했다. 토마스 구티에레스 알레아의 1968년 작 영화 <저발전의 기억>이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듯이 쿠바에 남은 자와 떠난 자의 간극은 뚜렷했다.<sup>6)</sup> 체 게바라의 염원대로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까? 1980년대 초부터는 이념적·정치적 이탈자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 사람들의 탈출이 이어졌고 그런 경향은 1990년대 초 구(舊)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을 목격한 뒤 선포된 ‘평화 시의 특별한 시대’(Periodo especial en tiempo de paz, 1992년 1월 1일 ‘특별한 시대’의 첫 해 선포)에 더욱 빈번해졌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봉쇄정책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강화되었다. 1992년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쿠바 민주주의 법’으로 알려진 토리첼리 법이 통과되었고, 1996년에는 ‘악명 높은’ 헬름스-버튼 법이 마련되었다.<sup>7)</sup> 쿠바 정부는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1976년 헌법에서 명시한 체제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탈색시키고 대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쿠바 국가, 호세 마르티, 애국적 교육과 같은 현실적이고 토착적인 요소를 새롭게 강조했다. ‘특별한 시대’ 동안 쿠바의 국가소득은 1989년 81억 달러에서 1993년에는 2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무역 거래와 원조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암시장이

6) 현재 110만 명(쿠바 인구의 약 10%에 해당) 정도의 쿠바 인들이 쿠바 섬에서 90여 마일 떨어진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남단 마이애미에 있는 탈출 쿠바인들의 집단 거주지는 ‘리틀 아바나(Little Havana)’로 알려져 있다.

7) 미국 의회가 1996년에 통과시킨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은 쿠바와 거래하는 비(非)미국계 회사를 재판에 회부하고, 쿠바에 입항한 선박은 6개월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 박재권, 「미국, 쿠바 혼내려다 ‘사면초가’ 위기: ‘헬름스-버튼법’ 무리한 적용이 전 세계 반발 불러」, 『시사저널』 제353호, 1996, pp. 62~63.

등장하자 쿠바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 달러화의 합법적인 유통, 관광 활성화, 대규모 국가 농장의 협동조합화, 완전고용 정책의 중단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관행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 이후 제한적 범위 내의 상품 판매 허용, 자영업과 농민 시장의 확대에 따라 1996년 1월에 자영업자로 등록된 이들은 16만 명을 넘어섰다. 또 정부는 전통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된 비공식 부문도 쿠바인들의 생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승인하게 되었고 심지어 국가 자원의 개인적 유용 같은 불법적인 생존 방식도 출현했다. 초유의 사태 속에서 쿠바노동자연맹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동원력은 현저히 감소했고 혁명-조국-피델의 역동성 또한 크게 약해졌다. 아울러 1998년 1월 닷새 동안 이뤄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다양한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쿠바 가톨릭교회는 오랜 침체를 벗고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다.<sup>8)</sup>

과연 쿠바혁명을 현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어쨌든 쿠바혁명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에 성공한 기획이었다. 그동안 한편에서 카스트로가 이끈 혁명 후 체제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사회적 관료주의’로 규정되면서 악마화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평가가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은 온당한 평가가 아닐 것이다. 1953년 법정의 최후 진술에서 카스트로가 강조한 것처럼 “인류가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곳을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8) 원래 쿠바의 가톨릭교회는 1959년 1월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축출을 환영하면서 산티아고데쿠바의 대주교 페레스 세란테스(Enrique Pérez Serrantes)의 교서(敎書)를 통해 종교적인 지향을 지닌 민주 정부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알려진 대로 카스트로는 어린 시절 세란테스 대주교의 후원으로 가톨릭 교구 학교에 다닌 바 있었다. 그러나 1959년 2월 중순 경 가톨릭교회는 혁명 세력이 자신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조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맞닥뜨린 원주민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던” 대다수 농민들과 특히 가난한 유색인종에게 쿠바혁명은 어떤 대안을 제공했는가? 또 “학위를 수여받은 뒤 한껏 기대를 품고 일자리를 구하지만 끝내 모든 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불안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던 젊은 전문직업인 1만 명에게 쿠바혁명은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퇴직금과 누려야 할 혜택을 탈취당하고 임금 삭감과 해고라는 불안에 시달리는 약 40만 명의 산업노동자”와 “경제 위기와 빚더미에 시달리는 2만 명의 영세사업가”에게 쿠바혁명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대통령 후보였다가 1952년 쿠데타 이후 바티스타 정권의 장관으로 등용된 카를로스 살라드리가스(Carlos Saladrigas)나 “국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횡령해 부자가 된 수백 명의 ‘도둑’(고위 관리), 또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백만장자”에게 쿠바혁명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지난 50년 동안 영욕의 세월을 관통해 쿠바혁명의 과거와 현재를 진지하게 살펴보기 위해 그 물음은 당연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